

## 다음세대, 다른세대 되지 않게

11월 6일부터 7일, 양일간 '일터사명컨퍼런스 2015'가 예능교회에서 열렸다. 일터사역연합 방선기 목사님의 오프닝 메시지로 시작된 컨퍼런스는 "일터에서 네 하나님을 보이라"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승욱**  
(이하 김) '방선기'하면 사람들은 직장사역, 가정교회, 비즈니스 미션을 떠올립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는 현재도 있으신 일터, 이랜드 아닐까 싶습니다. 설립 시기부터 함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함께 하게 된 건지, 직장사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동기를 여쭙습니다.

**방선기**  
(이하 방) 공과대학 졸업 후 6년 정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후 미국 리폼드신학교(RTS)에서 유학했었습니다. 유학 시절인 80년에 지금의 이랜드 박성수 회장이 이화여대 앞에 두 평짜리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시작한 셈이 되었지요. 7년이 지나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잠시 두란노서원 편집부에서 일을 하다가 91년도부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랜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사역은 첫 직장에서부터 꿈꾸었습니다. 직장 안에서 일하면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다보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직장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더군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회식자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직장 동료와의 다양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런 문제들 말입니다. 직장에서의 고민들을 풀어 갈 소통의 창구가 없다는 직장인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크리스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직장사역연구소가 되었지요.

93년 즈음에 <일하는 제자들>이라는 직장인들을 위한 잡지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도 진행했고요, 그러다 안식년을 맞아 폴 스티븐스(Paul Stevens, 월드뷰 2014년 11월호, 2012년 2월호 참고)가 있는 캐나다 리젠트신학교에서 일의 신학, 일터 영성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평신도를 잘 가르쳐도 삶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 이유를 그곳에서 알게 되었죠. 바로 일터에 대한 목회자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대상으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안양신학교를 필두로 서울신대, 총신대, 지금은 합신대에서 직장사역론, 직장목회론, 일상생활의 신학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미한 반응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이제 조금씩 직장사역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 ■ 크리스천 직업인들이 직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방**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들 말하는 문제는 ‘윗사람’입니다. 비단 직장만 그렇겠습니까. 어디든 그렇지요. 이 문제는 윗사람이 된 크리스천들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고, 또 아랫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삶의 정황이 그렇다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지만, 윗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일터가 천국이라 답해 줍니다. 대부분이 그

렇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인데 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윗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직장을 그만둔다면,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갈 곳이 없지요.

**김** ■ 지난달 11월에 ‘일터사역 컨퍼런스 2015’가 한 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셨는지요. 일터사역이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방** ■ 직장사역은 우선 직장에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 이전에 직장 내에서 일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사역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 사역을 직장선교라고 해서 직장 내 전도와 양육, 신우회 등을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세계관부터 다르게 일하는 것, 그것이 제가 지금까지 해온 직장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은 큰 계기가 있어야 확산이 되는데 함께 동역하는 원용일 목사와 최영수 목사 등의 도움으로 2013년부터 일터사명컨퍼런스를 시작하여 올해로 3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직장인’ 대상의 사역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사회는 교회 중심의 사고방식이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여야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몇몇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김** ■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잘 도와주나요? 직장에서 크리스천의 사명에 대한 인식은 교회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만,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야기하고 않고 있습니다.

**방** ■ 그럼에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별도로 세미나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을 잘 준비해서 교육하고 후속 작업이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만,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가 동안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자신은 성도를 선교지가 아닌 직장으로 파송하고 싶은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

고요. 당시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때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직업관, 성공관, 재물관, 직장생활에 필요한 직장 문화와의 갈등 해소 방법 및 윤리, 전도 등을 10주간 가르쳤어요. 이후 교회 안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직장사역 연구소의 최영수 목사가 소명아카데미란 프로그램을, 원용일 목사가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강의와 교육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육에는 정보를 덧붙인 A(addition)단계, 사과의 폭이 넓어지는 B(broadening)단계,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C(change)단계까지 3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B단계만 되어도 그게 어딘가 싶어요. 지금의 우리 세대가 B(broadening)단계만 되어도 다음 세대에서 C(change)단계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마저 없다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진리는 아는데 다음세대를 생각하는 전략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 저도 지금까지 세계관 운동을 해 오며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는 강의와 특강들을 소개하면 오해를 많이 합니다.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빌 3장), 지식과 경험, 철학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없이 왜 자기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며 비판합니다.

**방**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같이,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으로(고전 10장) 행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이미지로 먼저 판단하거든요. 그렇다고 완전 다르면 위선이겠지요. 속되게 표현하자면, 변장은 안 되지만 화장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그런 약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녹아 있음을 봅니다.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행해야 합니다.

**김** 변장술과 화장술이라 명쾌한 말씀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를 다시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 목사님의 가정교회 이야기가 제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하시게 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방** 사실 저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예 목회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교회를 보니 목회하려면 돈과 에너지가 건물과 회의에 너무 많이 소모되더라고요. 그런 건 못하겠다고 싶었어요. 현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예배, 기도, 교제다. 건물과 회의는 교회의 부수적인 것이다.” 저는 이 필수에는 관심이 있는데 부수적인 것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번 해 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지금은 그런 몇몇의 가정교회가 두 달에 한 번씩 모여 극장을 빌려 예배하기도 하지요.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한 계도 있고요.

김 ■ 가정교회의 한계요?

방 ■ 네, 바로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에게는 또래 집단이 중요한데, 가정교회다 보니 그 또래 집단이 구성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가정교회가 모여 함께하게 된 겁니다. 교회는 크고 작고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그런 한계도 있지만 나눔과 교제, 공동체에 있어서는 유익이 큰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다음세대를 위해서는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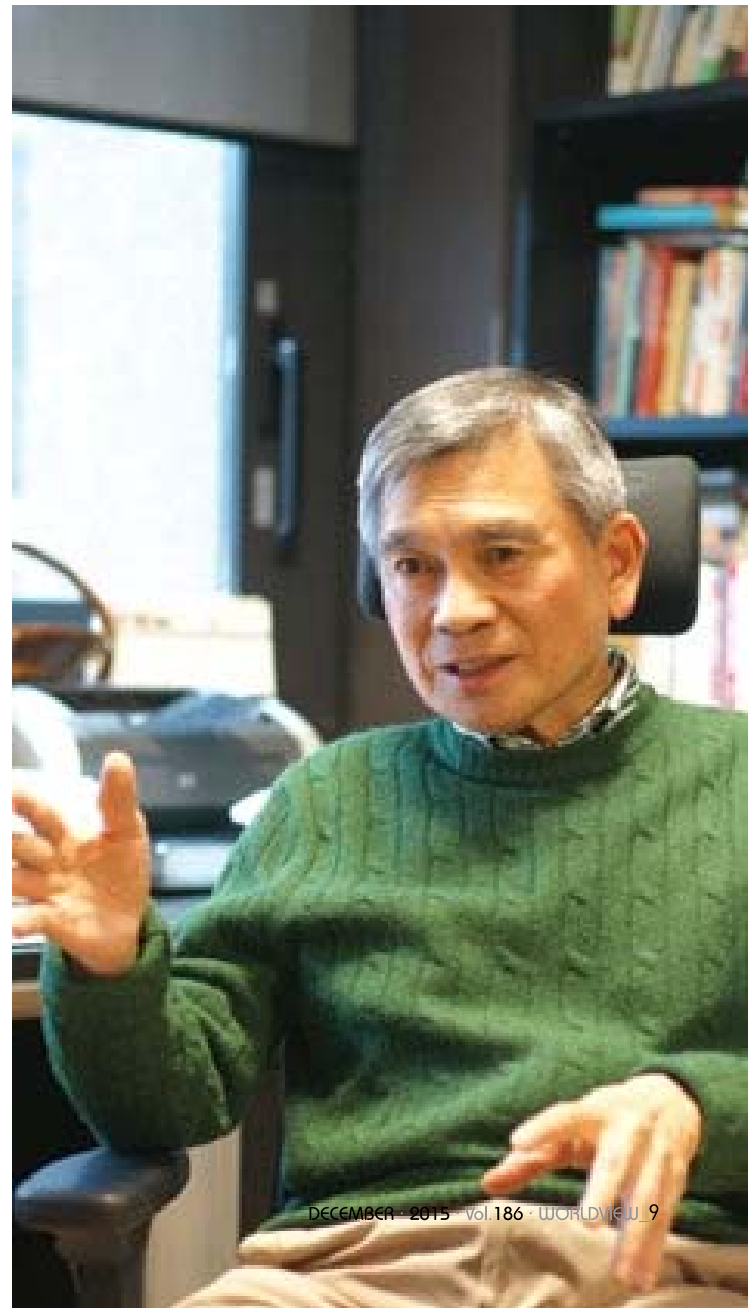
김 ■ 그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해야지 왜 교회에 자녀교육을 맡기는지 말입니다.

방 ■ 두 가지 면에서 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사춘기에 들어선 청소년에게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는 부모 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역할이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 내의 주일학교 시스템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학교라는 시스템에서 지금껏 가르쳤음에도 될까 말까인데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학교에서 만난다고 교육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학교 시스템이 아니라 공동체 교육이 더 중요해요. 애매모호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례를 들면 공동체 교육을 위해 저희는 수련회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평일에는 비어 있고 주일에는 꼭 차지만, 수양관은 주일에 비어 있어 어디든 저희 같은 작은 교회들이 모일 수 있거든요. 수련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교육의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 가정교회가 수련회를 통해 모이고, 청소년들은 그 속에서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각양각색의 세대가 모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 아주 오랫동안, 한 기업의 사목이십니다. 과연 기독교인 기업, 기독교 기업이 될까요.

방 ■ 회사가 잘될 때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질문이 대부분이었죠. 회사에서 예배를 하면 축복을 받아 무조건 잘될 줄 알아요. 그건 일종의 기복신앙이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기업은 돈, 일, 사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랜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부를 했어요. 기부, 그런데 돈만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기업의 정신인 '정직'입니다. 그리고 점차 회사가 커지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이 '사람'이었고요.



기독교 기업이라면 돈을 가치있게 벌고, 일은 정직하게 하고,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가 점점 커질수록 지키기 어려워지죠. 그래도 이 정신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회사가 커지다 보니 상당히 이상적인 기준으로 비난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팽창하거나 그로 인해 생기는 허점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 이론적인 관점에서 공격을 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기업이 되려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원칙과 이론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의 이야기도 들어 봐야 합니다. 기독교 기업을 이루어 가는데 희생이 있어요. 그 과정이 아주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도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비난 받을 정도는 아닌데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우리의 '괜찮은' 수준도 포기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 ■ 기독교 기업이라는 것이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회사는 없지요. 저도 국내 최고의 기업에서 기업관 강의를 할 때 매년 직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간을 돌린다고 한다면 다시 이곳에서 일할 거냐고요. 그러면 15%만 그렇다고 답합니다.

**방** ■ 성경적으로 경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완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 ■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성공관을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방** ■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러면 역설적으로 크리스천이 부나 성공을 추구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만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부를 누리게 하실 능력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모두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 ■ 기업관과 같은 맥락에서 직업윤리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 ■ 직업윤리, 사실 정직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곧이곧대로 하면 망하더라고요. 현실을 배제한 이상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타협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해야 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이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현실감이 없는 것이고, 굳이 표현하면 '옆집보다는 깨끗하게 어제보다는 깨끗하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거든요. 윤리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옆집보다는 낫게'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 ■ 그렇다면 성경적 직업관이 무엇일까요. 내년부터 <월드뷰>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종교개혁의 기수인 루터의 직업관이 각계에서 회자되고 있고요. 루터가 지금의 한국 사회, 한국의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무엇이 문제라 할까요?

**방** ■ 루터의 소명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업의 성숙이,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직업의 성숙은 모두가 많



이 말하잖아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기록하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했을 때 강조해야 할 부분은 일의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청년 실업도 해소할 수 있어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 입맛에 맞는 자리로 부르시지 않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합니다. 흔히들 요셉과 다윗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라고요.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총리대신으로 왕으로 살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스스로가 그런 자리를 바라며 살지 않았고요. 그들은 매순간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 생각하며 성심을 다하고 성의를 다했어요. ‘내가 앞으로 나간다’는 진로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가지면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을까 고민하게 되고, 부르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의와 성실을 다하면 그걸 통해서 분명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

십니다. 다윗이나 요셉처럼 장래에 또 다른 소명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지금 주신 일을 감사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김** 정부에서 이를 심각히 여기고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업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방** 사실 취업문제가 심각하다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람 구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취업 문제가 아닙니다. 취업을 해 봐야 또 이직해요. 일이 맘에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교육정책 때문에 생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학생들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냐, 내게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제입니다. 일자리 정책보다 먼저는 대학의 정원이 줄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그리고 일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닌 서로가 동역하는 것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명관은 개개인이 풀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구조적인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김**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사역, 다음세대를 강조하고 계신데 다음세대의 크리스천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 ■ 오늘의 청년들은 기업을 해 보려고 시도하질 않아요. 위험요소가 크니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위험을 전제하고 각오하는 것,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1순위가 공무원 혹은 교사입니다. 가장 안정적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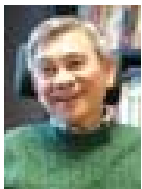
무조건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잘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도 부족한데 위험이 가늠도, 감당도 되지 않으니까 시도조차 안하는 거죠. 오늘날 청년들이 추구하는 것이 도전이 아닌 안정입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 감당하면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직장으로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을 안하려고 하면서 사실 자신의 청년 시절을 담보로 가장 큰 리스크테이킹(Risk Taking)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자긍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못한다는 마음으로 지레 포기하는 다음세대를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

음세대인 청년들을 세우는 훈련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공동체를 통해 훈련하는 것이 은퇴 후의 나의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찬란한 캠퍼스 사역 부흥기의 혜택을 받은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에는 어떤 이야기와 어떤 혜택이 있을 수 있을지, 선교단체가 생존에 급급하여 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오늘, 지금은 다음세대를 위한 또 다른 사역을 꿈꿉니다.



**김** ■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



**방선기**는 생활신학, 직장사역, 문서사역, 가정 교회, 평신도 운동, 기독교 교육 등 한국 교계의 '틈'에 서서, 그 틈을 겸손하고 일관된 실천으로 메워온 특이한 목회자이자 성경교사, 강연가, 신앙운동가이다. 종교적 감성은 풍부하지만 종교적 깨달음과 적용이 모호한 우리 교계 풍토에서 그가 소개하고 일으킨 솔한 운동들은 많은 신앙인들의 영적 개명과 안락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가정 교회인 '은혜와영광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랜드 사목으로 활동하고 있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직장사역론, 직장목회론, 일상생활의 신학, 설교 준비와 성경공부 워크숍 등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를 거쳐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 《그리스도인의 일상다반사》, 《쉬운 기독교 값진 은혜》, 《대중문화도 거룩해질 수 있는가?》, 《5분의 축복》 등이 있다.



**김승욱** 본지 발행인.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이다.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Ph. D.(경제사)를, 경제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경제제도학회이사, 국제경제학회 편집위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 국민일보 편집자문위원, (사)기독교세계관학술통역회 공동회장이자 이사이다.

## 소개합니다!

# 직장사역연합

직장사역연합(대표 : 방선기 목사)은 한국 교회에 흠어진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일터사역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역 연합체이다. 1993년 직장사역연구소, 2003년에 사목을 파송하여 기업을 섬기는 CS네트워크, 2005년에 직장사역을 교회와 신학교, 기업에 훈련으로 적용하는 직장사역훈련센터가 설립되어 동역하며 일터사역의 시너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직장사역연합에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주요한 사역은**

**(1) 일터사명컨퍼런스, (2) 소명아카데미, (3) 일터사역학교 강사 워크숍 등이 있다.**

일터사명컨퍼런스는 2013년부터 열기 시작하여 올해 3회 대회를 연 모임으로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는 주제로 교회들이 일터사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사회를 조직하여 순회방식으로 열고 있다. 2013년에 선한목자교회, 2014년에 온누리교회에 이어 2015년에는 예능교회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다. 내년에는 부천 온세계교회에서 4회 컨퍼런스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 일터사명컨퍼런스에는 일터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 크리스천 기업인, 직업인 성도, 신우회원 등 일터사역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모인다. 참석자들은 일터사역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며 일터사역의 사명에 공감하고 일터사역의 구체적 전략을 공유하여 한국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모색하고 있다. 일터사역을 하는 기관들이 준비하는 부스를 통해서도 유익한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다.

소명아카데미는 주일과 평일의 간격 있는 삶의 고민을 성경적으로 해석하여 일터에서 신앙인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소명아카데미는 12강좌를 2단계로 나누어서 6주 동안 소명편, 이후 6주 동안 비전편을 훈련한다. 소명편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재물관, 성경적 문화관, 성경적 대인관계, 성경적 직업관, 성경적 자기 관리 등이다. 수련회 및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일터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변화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높은뜻교회연합의 교회들, 선한목자교회, 지구촌교회, 일산동안교회, 충신교회, 할렐루야교회 등 전국 100여 개 교회에서 시행했고 전후반기 20여 교회들이 진행하고 있다. 청년 소명아카데미와 청소년 소명아카데미도 연령에 맞게 조정된 일터사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훈련하고 있다. 아울러 직장사역훈련센터에서는 일터사역 목회자훈련학교를 각 신학교(장신, 총신, 대신, 합신, 영산신, 한세대 등)에서 1,2단계로 열고 있다. 목회자훈련학교 과정을 수료한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일터사역의 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직장사역연구소에서는 일터사역자들을 위한 자료집으로 월간 <직장사역>(자료 CD 포함)을 발간하고 있으며 일터사역 학교 자료세트를 통해 크리스천 직업인들을 세상 속 사역자로 세워주는 강사 교육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교회(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장년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요셉 비전 학교>, <크리스천 직업 준비 학교>, <크리스천 성공 학교>, <청년 5M 훈련 학교>, <다니엘 일터선교사 학교> 등이 있고 직장신우회와 크리스천 기업을 위해서도 <크리스천 직장생활 학교>, <크리스천 책임 학교>, <룻기 일상생활 학교> 등이 있다. 정기적으로 강사 워크숍을 열어 책과 워크북, 자료 CD와 동영상 강의 CD를 제공하며 사역 현장에서 직접 강의하며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